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06141,
KOREA

Phone: 82-2-3210-2480~3

Fax: 82-2-3210-2488

<https://www.bridgestone->

브리지스톤 타이어 코리아, 겨울용 타이어 최신 모델 블리작 6 출시

- 블리작 6, 독일 공인 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TÜV SÜD)에서 2023년 실시한 겨울용 타이어 비교 테스트에서 눈길 가속력·제동력 부문 최고 등급 획득
- 블리작 6, 독일 아우토빌트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설상 부문 최고 점수 획득
- 'EV-ready' 설계 적용,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겨울용 타이어
- 국내 처음 선보이는 브리지스톤의 알파인 계열 겨울용 타이어
- 승용차, 스포츠카, SUV 및 EV 장착 가능

서울 (2025년 11월 28일) — 전 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현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 코리아)가 겨울용 타이어 최신 모델 블리작 6 (Blizzak 6)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블리작 시리즈는 1988년 첫 출시 이후로 브리지스톤의 겨울용 타이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겨울철 도로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블리작, 발포고무 사용한 스터드리스 타이어의 선구자

블리작 시리즈는 발포고무로 잘 알려진 멀티셀 구조(다중 세포 구조)의 특수 고무 컴파운드와 혁신적인 트레드 디자인을 적용해 스터드(stud) 타이어를 대체하는 스터드리스(studless) 타이어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다. 브리지스톤은 이러한 블리작의

혁신의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독일 공인 시험기관 티유브이슈드(TÜV SÜD) 테스트 최고 등급

독일의 독립적인 공인 시험기관인 티유브이슈드(TÜV SÜD)가 2023년 실시한 겨울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브리지스톤 블리자 6는 ▲주요 경쟁 브랜드 대비 눈길 가속력과 제동력 부문에서 최고 등급(100% 평가치)을 기록했고, ▲젖은 노면 조건에서 시속 80km에서 시속 20km로 감속했을 때 제동거리 35.1m로 동급 타이어 중에서 최단 제동거리를 기록했다. 또한 이전 모델 LM005 대비 ▲ 약 32%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이 확인되며 성능과 마모 내구성을 모두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아우토빌트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 1위

브리지스톤 블리자 6는 독일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스포츠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45 마력의 아우디 Q3 스포트백 45 TFSI 쿼트로에 장착된 235/50R19 규격의 11개 겨울용 타이어 중 브리지스톤 블리자 6가 설상 트랙션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테스트에서 블리자 6는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뛰어난 제동력과 트랙션을 보여주며 블리자 6의 명성을 입증했다. 테스트에 참가한 에디터들은 브리지스톤 블리자 6를 '설상 전문가(snow expert)'로 선정하고 '겨울 도로에서의 탁월한 횡방향 그립력'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블리자 6가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모두에서 '균형 잡힌 고품질 성능'을 발휘하며 인상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탁월한 성능으로 브리지스톤의 프리미엄 겨울용 투어링 타이어 블리자 6는 종합 등급 '모범(Exemplar, 1.3 등급)'을 획득하고 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티유브이슈드와 아우토빌트의 테스트 결과는 브리지스톤이 겨울용 타이어 기술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 블리자 6가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기 자동차(EV)까지 아우르는 'EV-Ready' 원터 타이어

블리자 6는 EV까지 대응하는 'EV-Ready' 설계로 제작됐다. 전기차의 높은 하중과 즉각적인 토크(고하중 고토크)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전기차 운전자에게 최적의 겨울용 타이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블리자 6는 "겨울철에도 전기 자동차의 고성능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엔라이튼 ENLITEN™ 기술 적용으로 지속가능성에 더욱 다가가는 원터 타이어

블리작 6 는 브리지스톤의 엔라이튼 ENLITEN™ 기술로 설계됐다. 엔라이튼은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설계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기술로 고객이 요구하는 타이어 성능을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불어, 블리작 6 에 고무 분자 구조의 에너지 제어 기술을 사용해 패턴 강성을 최적화함으로써 눈길, 빙판길, 젖은 노면 등 겨울철 모든 도로 조건에서 탁월한 제어력을 발휘한다.

이와 함께 최적화된 패턴 디자인과 컴파운드를 사용해 노면 접촉의 효율성을 높였다. 횡방향 그루브 설계(mono-lug architecture)는 트레드 사이의 물과 눈을 신속히 배출해 강력한 접지력을 발휘한다. 또한 트레드 러그 패턴 하단에 릿지를 적용해 노면의 눈을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코너링 시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마모 에너지를 균등하게 분산시켜 타이어 수명을 연장했으며, 노면 소음을 감소시켰다.

국내 처음 선보이는 브리지스톤의 알파인 계열 겨울용 타이어

블리작 6 는 국내 기후 및 도로 환경에 더욱 적합한 알파인 계열 원터 타이어다. 승용차, 스포츠카, SUV 는 물론 전기차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코리아의 상품총괄 및 기획팀 차상대 팀장은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이미 입증된 브리지스톤의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 블리작 6 를 이번에 국내 소비자들께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모든 계절이 마찬가지지만, 겨울은 운전할 때 더욱 정교한 제어력이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블리작 6 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더욱 굳게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